

# 靑 ‘고용연장=정년연장’ 아니지만...“사실상 같은 효과”

### 계속고용제, 재고용 등 ‘우회로’ 허용 정년연장 호봉제 개편 등 보완책... “제도설계 신중히”

“고용연장도 이제 본격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의 업무계획 보고에서 한 언급이 폭발적인 주목을 받은 배경에는 정년연장을 향한 기업과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고령화·저출산 사회라지만, 정년연장은 기업 부담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아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걱정한다.

고용연장이 정년연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을 청와대에서 이틀 만에 내놨지만, 이번 발언에 대한 관심은 쏠려 식질 않고 있다.

사실상 정년연장과 다른 없는 고용연장을 ‘다르다’고 포장했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정부는 작년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던 고용연장 논의 계획이 집중적으로 재조명되자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러 정부 관계자가 나서서 고용연장과 정년연장의 차이점과 함께, 고용연장의 일종인 ‘계속고용제도’가 앞으로 오랜 기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이유다.

◇계속고용 제도란?... ‘정년연장’ 동일효과

고용연장이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때는 작년 9월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지난 4개월 동안의 논의를 마무리한 결과로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응방안에서는 ‘고용연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고용연장이란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은퇴 전후 시기에 놓인 고령자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계속고용제도’는 이러한 고용연장을 실천하기 위해 언급된 수단이었다.

60세 정년 이후 고령 근로자가 일정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용연장 의무를 부여하되, 그 방식 만큼은 기업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몇가지 선택지를 주는 제도다.

기업이 고용연장 방식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정년연장’이 포함됐다.

통상 정년연장이란 국회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각 기업의 정년을 일제히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년연장은 기업이 근로자의 의무 퇴직시기를

‘자발적으로’ 늦추는 것을 뜻했다.

정부가 언급한 또다른 선택지로는 재고용이나 정년폐지도 있었다.

즉, 고령자를 법적인 정년 이후까지 고용토록 한다는 점에선 사실상 정년연장과 동일한 효과를 내나, 연장되는 정년의 햇수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으며, 정년 퇴직 이후 몇개월 내 근로조건을 다르게 계약해(재고용) 기업 측 부담을 줄이는 우회로를 허용해 주는 것. 이것이 계속고용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 계속고용제 도입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고령화 시기를 감안해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펴낸 경제정책방향에도 담은 내용이다.

논의 결과 제도 도입이 결정될 경우, 정부는 또다시 ‘도입 시기’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제도 시행까지는 적어도 3~4년 이상이 남은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부담·청년취업 어렵다...보완책 마련 ‘쟁점들’

경영계에서는 계속고용제도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지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신규 채용 여력이 사라져, 청년 취업난이 심해질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법적인 정년을 60세로 올린 지 3년밖에 안 된 시점에 또다시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정년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늘리면 기업 부담은 늘고 자칫 세대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차근차근 마련해 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예산을 통한 인건비 지원이 가장 대표적인 대책이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정년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했다.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 예산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고령 근로자 9000명에 대해 모두 24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 실업에 대한 악영향은 논의 시기 조정을 통해 최대한 피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속고용제도 논의의 시기를 2022년으로 잡은 이유는 그 해가 되면 20대 후반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이다”라며 “이러면서 “그 때에 가서는 청년 취

업난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에 2022년 상황을 보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이 정년을 폐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가 있었다. 청년이든 노인 이든 담당 직무의 가치만큼 임금을 주기에 나이와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고용연장을 인건비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활용했을 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생필품 재고 넉넉하게** 16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알리고 있다. 홈플러스에서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나 위생용품뿐 아니라 핵심 생필품의 온라인 구매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홈플러스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존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사업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필품 수급을 지원키로 했다.

## 취업 의지 없는 2030 청년백수 57만명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도 포기한 채 그냥 쉬고 있는 20·30대 청년백수가 8년 만에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쉬고 있는 20·30대는 56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3.7%) 증가

고 있거나 일거리가 없어서 쉬는 사람, 취업준비를 위해 쉬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이처럼 청년백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20대에서 쉬고 있는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 1월 쉬고 있는 20·29세는 35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2만2000명(6.4%) 증가했다.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20대 쉬었음 인구가 크게 늘면서 전체 쉬었음 인구도 증가했다. 15~64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176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15~64세 비경제활동인구 1133만8000명 중 15.6%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처럼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쉬었음의 주된 이유 중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어려워 쉬고 있는 인구가 37만이다.

## CJ·농심 물 들어 왔지만...‘짜파구리’ 딜레마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4관왕이라는 영광을 달성하면서 극 중 등장하는 ‘짜파구리’ (짜파게티+너구리) 열풍이 불고 있다. 농심은 영화 상영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을 쏟아내고 있다. CJ 역시 짜파구리를 활용한 이벤트가 기생충 흥행에 도움이 된다. 다만 두 기업 모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소식과 함께 짜파구리 조리법 동영상상을 11개국 언어로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짜파구리는 농심의 리얼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친 단어다. 2009년 한 네티즌이 자신의 레시피를 온라인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최근 기생충 효과로 과거보다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농심은 이번 기회를 해외시장 공략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일부터 영국 극장에서 짜파구리 샘플링을 나눠주며 인지도 높이기 나섰다. 영화 관람 후 주인공이 먹었던 제품을 체험하고 실생활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아예 짜파구리 컵라면을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각각 구매해 조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이라 기대다.

식품 업계에선 각종 신제품이 쏟아진다. 반대로 선택을 받지 못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도 많다. 최근 식품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다. 다만 매출 부진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적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문제는 짜파구리가 정식 제품으로 등장하면 기존 짜파게티와 너구리 매출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짜파구리를 먹기 위해선 두 제품을 사야 한다. 짜파구리가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찾는 손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 갤럭시Z플립, 해외서도 ‘완판’ 행진 “디자인, 전작 대비 저렴한 가격이 인기 원인”

삼성전자의 두 번째 접이식(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완판’ 행진이다.

16일 폰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Z플립은 미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에서 출시 첫날인 지난 14일 하루 만에 매진됐다.

위·아래로 접히는 조개 모양(클램셸)을 띠고 있는 갤럭시Z플립은 지난 14일부터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됐다. 색상은 3종(미러플립, 미러블랙, 미러골드)으로 미러골드는 일부 업선된 국가에서만 출시된다. 국내 출고가는 165만원이다.

갤럭시Z플립은 국내 일부 온라인몰에서 30분 만에 완판되며 ‘대박’ 조짐을 보였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온라인몰인 ‘U+Shop’에서 오전 8시50분부터 갤럭시Z플립의 판매를 시작, 초도 물량이 30분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물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는 출시 1시간 만에 매진을 기록했다. 싱가포르 삼성전자는 “(시차로 인해) 현재 짜파구리를 먹기 위해선 두 제품을 사야 한다. 짜파구리가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찾는 손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고 전했다.

갤럭시Z플립은 미국에서도 출시 당일 완판되며 위용을 과시했다. 미국 삼성전자는 온라인몰 매진 소식을 알리며 “갤럭시Z플립은 오는 21일 재입고된다”고 공지했다.

아랍에미리트 삼성전자 온라인몰에서도 하루 만에 매진됐다. 아랍에미리트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갤럭시Z플립이 매진됐으며 다음 물량은 오는 18일에 들어온다”고 알렸다.

아랍에미리트 삼성전자 홈페이지에는 한국, 미국 등과 달리 ‘미러골드’ 색상이 추가됐다. 다만 미러골드 갤럭시Z플립은 아직 판매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다. 가격과 메모리 등의 스펙은 다른 2종과 동일하게 표기됐다.

이처럼 갤럭시Z플립이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에 대해 외신은 “아름다운 디자인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고 분석한다.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생긴 점도 긍정적이다. 갤럭시Z플립은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보다 31%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갤럭시 폴드 국내 출고가는 239만8000원이었다.

**제 898회차 당첨결과** (2020년 2월 15일 추첨)

18 21 28 35 37 42 + 17

순위	당첨개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7	2,639,313,235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46	62,840,792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586	1,086,138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28,068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2,066,172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간 : 지급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명연일)